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with the Knowledge, 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n Patient Safety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임동영*, 장현정**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Dong-Young Lim(dyylim@kbu.ac.kr)*, Hyun-Jung Jang(jangah74@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일부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G도에 소재한 K대학교 간호학과와 K도에 소재한 K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 총 30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K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은 3학년보다 4학년에 걸쳐($t=3.69, p<.001$)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수행자신감은 환자안전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교육유무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간호전문직관과의 차이에서는 학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수행자신감은 약한 순 상관관계($r=.148, p<.001$)를 보였으며 수행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r=.456, p<.001$)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임상실습에 대한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자안전에 대한 강화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중심어 : | 환자안전 | 지식 | 수행자신감 | 간호전문직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by surveying a target sample of nursing students. The following data were collected: students' knowledge regarding patient safety, performance confiden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 The subjects were 309 junior and seni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in K University located in G and K provinc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15, 2017 to November 15, 201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23.0K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study results were that the senior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knowledge about patient safety than did the junior students ($t=3.69, p<.001$). With the exceptions of two attributes, education regarding the patient safety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 all other characteristics were variables t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formance confidence ($p<.05$). Moreover, all characteristics except for the school year were variables t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nursing professional value ($p<.05$). A weak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the knowledge regarding patient safety and performance confidence ($r=.148, p<.001$). A moderate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erformance confidence ($r=.456, p<.001$). Reinforced education regarding patient safety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confidence for clinical practice.

■ keyword : | Patient Safety | Knowledge | Confidence in Performance | Nursing Professional Value |

접수일자 : 2018년 02월 13일

수정일자 : 2018년 04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4월 18일

교신저자 : 장현정, e-mail : jangah74@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환아의 항암제 투약오류 사건으로 인해 국내 환자안전에 대해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에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고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1]. 또한 보건의료계는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발생하는 오류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자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료기관인증제의 인증항목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다[2]. 특히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환자안전’, ‘화재안전’, ‘환자안전보고 체계운영’ 등의 기준을 인증 필수조건으로 하여 환자안전보장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인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부분에 대해 ‘환자안전에 기여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2015년도 87.1%에 비해 2.9% 포인트 상승한 90.2%로 나타나[3]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자안전이란 환자의 부상이나 사고가 의료서비스 전달과정 중에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4]. 환자안전에 대한 오류 및 문제 발생으로 초래된 사고는 환자의 생명 뿐 아니라 병원의 재정적 손실과 함께 의료진 및 병원에 대한 신뢰감 저하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환자안전은 의료의 질 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5]. 이에 의료기관의 모든 인력이 관심을 갖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오류를 통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5]. 이 중 간호사는 환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하여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한다[6].

환자안전은 원칙과 지식을 통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7]. 이에 대해 2014년 병상별 환자안전관련 교육 및 시행 조사에 따르면 133개 기관 중 63개 기관이 1회/년(47.4%), 30개 기관이 1회/반기(22.6%)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중 201~400병상수를 갖춘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50% 이상이 최소 1회/년의 환자안

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8].

환자안전관련 교육시행 기관의 비율은 병원보다 요양병원이 높으며 교육대상자도 간호사가 9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많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26.3%, 잘 알고 있는 경우는 20.3%[1]로 낮은 인지도를 보여 환자안전에 대한 확실한 예방 교육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국내 환자안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간호사, 의사, 의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 태도, 안전문화 등에 관한 것이다[9].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시 직접적으로 환자안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습 시 학생들이 경험한 환자안전 사고로는 낙상과 주사바늘 찔림 사고 등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10]. 이처럼 간호대학생은 실습 시 대상자와의 접촉이 많지만 임상술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숙하다[11].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에 배우고 익힌 환자안전관련 감염예방 이행 습관은 향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고[12],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은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13]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식[14][15], 환자안전관리 활동[9][16], 자기효능감[5]등이 주로 시행되고 있고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수행자신감[14][15]은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므로 환자안전에 있어 학생들이 높은 수행자신감을 갖고 실습에 임한다면 더욱 효율적이며 실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17].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가치와 신념 등이며 이는 간호활동과도 관련성이 있다. 즉, 개인의 전문적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고 환자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간호전문직관[18]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부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에 소재한 K대학교 K도에 소재한 K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7에 따라 One-Way ANOVA로 유의수준(α)=.05, 효과크기((ES)=.20, 검정력(1- β)=.85일 때 최소 표본수가 218명으로 산출되었고, 탈락률 40%를 고려하여 315명으로 하였다. 이 중 자료가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한 309부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학년
- 2)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형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10문

항, 수행자신감 10문항, 간호전문직관 18문항, 일반적 특성 9개 문항의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환자안전에 관한 지식 측정도구는 박정혜와 박명화[15]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하고, 최승혜와 이해영[19]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개발한 안전평가 항목 중 간호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10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지식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최고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2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자신감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총 10문항으로 환자안전 문제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과 6가지 국제 환자안전 목표 중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확한 환자확인, 보건의료관련 감염 감소, 낙상위험 감소를 위한 간호 수행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수행할 자신이 있는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 항목 측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자신 있다' 5점, '자신 있다' 4점, '보통이다' 3점, '자신 없다' 2점, '매우 자신 없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정혜와 박명화[15]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5이었다.

3.3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가 개발한 29문항을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21]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 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문항 번호 17, 18번의 2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각 항목 측정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총 5개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21]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6이었다.

4. 자료수집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참여 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3.0 vers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평점, 최대값 및 최소값으로 산출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차이가 있는 집단의 사후검정은 Scheffé t-test를 실시하였다.
- 5)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총 309명으로, 평균 연령은 23.84세였으며, 성별은 여자가 266명(86.1%), 남자가 43명(13.9%)이었다. 학년은 3학년은 148명(47.9%), 4학년은 161명(52.1%)이었다.

대상자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73명(56.0%), '불만족한다'가 11명(3.6%)이었고,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56명(50.5%), '불만족한다'가 20명(6.5%)이었다. 또한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는 경우가 254명(82.2%), 없는 경우가 55명(17.8%)이었다. 병원이나 학교외부에서 포스터 전시, 환자안전 행사, 동영상 등의 환자안전 캠페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186명(60.2%), 없는 경우는 123명(39.8%)이었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5명(66.3%), 없는 경우는 104명(33.7%)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9)

| 변수 | 구분 | n(%) or mean±SD |
|--------------------|-----|-----------------|
| 나이 | | 23.84±3.77 |
| 성별 | 남 | 43(13.9) |
| | 여 | 266(86.1) |
| 학년 | 3학년 | 148(47.9) |
| | 4학년 | 161(52.1) |
| 간호학 전공만족 | 만족 | 173(56.0) |
| | 보통 | 125(40.4) |
| | 불만족 | 11(3.6) |
| 임상실습 만족 | 만족 | 156(50.5) |
| | 보통 | 133(43.0) |
| | 불만족 | 20(6.5) |
| 환자안전 교육유무 | 예 | 254(82.2) |
| | 아니오 | 55(17.8) |
| 병원내외 환자안전 캠페인 경험유무 | 예 | 186(60.2) |
| | 아니오 | 123(39.8) |
| 간호전문 직관의 교육유무 | 예 | 205(66.3) |
| | 아니오 | 104(33.7) |

2.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6.68±1.50점(범위: 2-10), 평균평점 0.66±1.5점(범위: 0-1)으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수행자신감은 평균 39.80±5.52점(범위: 13-50), 평균평점

3.98±.55점(범위: 1-5)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69.47±8.72점(범위: 47-90), 평균평점 3.85±.48점(범위: 1-5)으로 중간 정도였다[표 2].

표 2.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정도 (N=309)

| | Mean±SD | Min-Max | Average Mean±SD | Range |
|--------|------------|---------|-----------------|-------|
| 환자안전지식 | 6.68±1.50 | 2-10 | 0.66±.15 | 0-1 |
| 수행자신감 | 39.80±5.52 | 13-50 | 3.98±.55 | 1-5 |
| 간호전문직관 | 69.47±8.72 | 47-90 | 3.85±.48 | 1-5 |

3.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정답률은 67.0%로 전체 문항 평균은 6.68점이었다. 정답률이 90%이상으로 높은 문항은 ‘침상에서 낙상방지를 위해 침상난간을 모두 올려놓는다’가 94.2%, ‘멸균장갑을 끼고 처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갑 착용 전 손 위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91.9%, ‘구두/ 전화처방 시 처방내용이 수행된 뒤에는 구두/ 전화처방 내용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91.3%,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는 보고하지 않는다’가 90.3%이었다. 반

표 3.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N=309)

| 내 용 | 정답 빈도 | 백분율 |
|---|-----------|-------|
| 침상번호와 환자이름으로 환자를 확인한다. | 89 | 28.8 |
| 멸균장갑을 끼고 처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갑 착용 전 손 위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 284 | 91.9 |
| 구두/ 전화처방 시 처방내용이 수행된 뒤에는 구두/ 전화처방 내용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282 | 91.3 |
| 구두와 전화처방을 시행 한 의사는 24시간 이내에 전산처방을 시행 하여야 한다. | 255 | 82.5 |
|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동반하거나 그런 위험을 동반한 기대하지 않은 사건’을 위해 사건(adverse event)이라고 한다. | 172 | 55.7 |
| 근접오류(near miss)는 환자에게 위해를 유발하지 않은 의료오류를 의미한다. | 132 | 42.7 |
| 일회용 카테터가 담겨 있던 포장지는 의료폐기물로 분리수거할 대상이 아니다. | 134 | 43.4 |
| 침상에서 낙상방지를 위해 침상난간을 모두 올려놓는다. | 291 | 94.2 |
|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오류는 보고하지 않는다. | 279 | 90.3 |
| 환자의 가족이 전화로 환자상태를 묻는 경우 친절하게 설명한다. | 152 | 49.2 |
| 전체 정답률 | 6.68±1.50 | 67.0% |

면 정답률이 50%이하로 낮은 문항 중 ‘침상번호와 환자이름으로 환자를 확인한다’가 28.8%로 가장 낮았고, ‘근접오류(near miss)는 환자에게 위해를 유발하지 않은 의료오류를 의미한다’ 42.7%, ‘일회용 카테터가 담겨 있던 포장지는 의료폐기물로 분리수거할 대상이 아니다’에 대해 43.4%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표 3].

4.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자신감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전체 문항 평균 3.98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행자신감으로는, ‘올바른 손위생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수행한다’와 ‘이동침대 또는 휠체어로 환자를 이동할 때 바퀴를 항상 고정시킨다’가 4.36점, ‘환자가 있는 침상난간을 항상 올린 채로 유지하고 난간의 중요성을 설명한다’가 4.3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수행자신감이 낮게 나타난 부분은 ‘의료오류 발생 시 사건보고서 경위서를 정확하게 작성한다’가 3.50점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오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상황을 분석한다’가 3.54점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자신감 (N=309)

| 내 용 | Mean±SD |
|--|----------|
| 의료오류 발생 시 사건보고서 경위서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 3.50±.81 |
| 오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상황을 분석한다. | 3.54±.73 |
| 오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료들 지지하고 조언해준다. | 3.79±.74 |
| 의료인에게 오류에 대해 알린다. | 3.84±.75 |
| 담당교수에게 오류에 대해 알린다. | 3.92±.73 |
| 환자 확인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매 처치 전 정확하게 확인한다. | 4.05±.77 |
| 올바른 손위생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수행한다. | 4.36±.73 |
| 감염예방을 위하여 오염쓰레기를 일반오염물과 적출물로 분리 배출한다. | 4.10±.80 |
| 환자가 있는 침상난간을 항상 올린채로 유지하고 난간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 4.30±.72 |
| 이동침대 또는 휠체어로 환자를 이동할 때 바퀴를 항상 고정시킨다. | 4.36±.72 |
| 전체 | 3.98±.55 |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전체 문항평균 3.85점으로 [표 5]와 같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에서 평균평점 4점 이상으로 나타난 문항을 살펴보면, ‘전문인으로서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전문지식을

표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N=309)

| 내 용 | Mean±SD |
|--|-----------|
| 간호사는 박애정신을 지닌 성숙한 인격을 지닌다. | 3.91±.62 |
| 전문인으로서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전문지식을 획득한다. | 4.23±.62 |
| 간호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 4.19±.62 |
|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는 전문인처럼 보인다. | 3.95±.79 |
| 간호사는 대중적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 같다. | 3.54±.93 |
|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윤리를 보여준다. | 3.99±.65 |
| 간호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 3.55±.95 |
| 간호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 3.39±.97 |
| 간호사는 기관의 지지와 인식을 통해 만족스러운 심적 보상과 적절한 대우를 받는 직업이다. | 3.23±1.08 |
|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전문분야의 사람들에게 전문인으로 존경을 받는다. | 3.51±.89 |
| 간호사는 의사와 같이 의학계의 다른 전문인과 활약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여준다. | 3.83±.72 |
| 간호직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만이 행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직업이다. | 4.01±.69 |
|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사랑을 의미하는 동양철학인 '인(仁)'의 개념으로 행해져야 한다. | 3.88±.73 |
| 간호는 간호사만이 행할 수 있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로 인정된다. | 4.00±.70 |
|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과업수행과 성숙한 인격을 보여준다. | 3.96±.67 |
| 한국에 적합한 특별한 간호이론이 발전된다면 간호는 외국 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 후에도 경쟁력이 있을것이다. | 3.97±.74 |
|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전문인처럼 간호의 전문성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 | 4.13±.92 |
| 간호직은 기관의 다른 전문인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다. | 4.13±.92 |
| 전체 | 3.85±.48 |

획득한다'가 4.23점, '간호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가 4.19점,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전문인처럼 간호의 전문성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와 '간호직은 기관의 다른 전문인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다'가 4.13점, '간호직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만이 행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직업이다'가 4.01점, '간호는 간호사만이 행할 수 있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로 인정된다'가 4.0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간호사는 기관의 지지와 인식을 통해 만족스러운 심적 보상과 적절한 대우를 받는 직업이다'가 3.23점으로 나타났다[표 5].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은 4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나(t=3.69,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행자신감은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 유무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교육 유무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수행자신감은 전공에 대해 만족할수록(F=2.92, p<.001),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F=3.48, p<.001)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병원이나 학교외에서 환자안전 캠페인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수행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t=1.56, p=.046).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차이 (N=309)

| | |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 | | 수행자신감 | | | | 간호전문직관 | | | |
|---------------------|------------------|-------------|--------|------|----------|--------|-------|---------|----------|--------|-------|---------|
| | | Mean±SD | t or F | p | Mean±SD | t or F | p | Scheffé | Mean±SD | t or F | p | Scheffé |
| 학년 | 3학년 | 0.63±.12 | 3.69 | .000 | 3.86±.55 | 1.85 | .009 | | 3.83±.48 | 1.27 | .163 | |
| | 4학년 | 0.69±.16 | | | 4.08±.53 | | | | 3.87±.48 | | | |
| 간호학 전공만족 | 만족 ^a | 0.66±.16 | 1.26 | .261 | 4.08±.54 | 2.92 | <.001 | a)c | 4.03±.46 | 3.21 | <.001 | a)b,c |
| | 보통 ^b | 0.67±.13 | | | 3.85±.53 | | | | 3.67±.41 | | | |
| | 불만족 ^c | 0.63±.15 | | | 3.72±.50 | | | | 3.24±.29 | | | |
| 임상실습만족 | 만족 ^a | 0.67±.16 | 1.76 | .083 | 4.44±.59 | 3.48 | <.001 | a)c | 4.02±.46 | 2.43 | <.001 | a)b,c |
| | 보통 ^b | 0.66±.12 | | | 3.87±.42 | | | | 3.70±.43 | | | |
| | 불만족 ^c | 0.63±.12 | | | 3.69±.67 | | | | 3.61±.51 | | | |
| 환자안전 교육유무 | 예 | 0.67±.15 | 0.42 | .908 | 4.02±.53 | 1.18 | .248 | | 3.87±.47 | 1.66 | .011 | |
| | 아니오 | 0.66±.14 | | | 3.82±.59 | | | | 3.78±.51 | | | |
| 병원내외 환자안전 캠페인 경험 유무 | 예 | 0.68±.15 | 1.25 | .266 | 4.05±.56 | 1.56 | .046 | | 3.90±.46 | 2.25 | <.001 | |
| | 아니오 | 0.64±.13 | | | 3.87±.51 | | | | 3.78±.50 | | | |
| 간호전문직관 교육 유무 | 예 | 0.66±.14 | 1.24 | .270 | 3.99±.54 | 1.41 | .093 | | 3.90±.46 | 1.68 | .010 | |
| | 아니오 | 0.67±.15 | | | 9.95±.56 | | | | 3.76±.51 | | | |

간호전문직관은 학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만족'이 '보통'이거나 '불만족'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F=3.21, p<.001$),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서도 '만족'이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F=2.43, p<.001$). 환자안전에 대해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t=1.66, p=.011$). 병원이나 학교외부에서 포스터 전시, 환자안전 행사, 동영상 등의 환자안전 캠페인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t=2.25, p<.001$),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1.68, p=.010$)[표 6].

7.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수행자신감에 대한 관계는 약한 정도의 순 상관관계($r=.148, p<.001$)를 보였다. 즉,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수행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r=.456, p<.001$)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간호전문직관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상관관계 (N=309)

| | 지식 | 수행자신감 | 간호전문직관 |
|--------|--------------|--------------|--------|
| 지식 | 1 | | |
| 수행자신감 | .148(<.001) | 1 | |
| 간호전문직관 | -.015(.788) | .456(<.001) | 1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파악함으로

써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은 6.68점(10점 만점), 67%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16점 만점에 7.68점, 정답률 48%[15]와 응급구조과 2, 3학년 대상의 환자안전 지식 점수 평균 4.33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난 결과[22]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안전교육 전, 간호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는 5점 만점에 1.68점으로 33.6%의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50% 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인 '환자 확인을 침상번호를 통해 확인한다'는 부분은 핵심술기 기술의 프로토콜에서도 대상자 확인부분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 실습하고 있기는 하나 임상실습 시 간호사들이 침상번호를 통해 환자를 확인하는 잘못된 수행방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해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므로 임상에서의 지식 실천율도 사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환자안전 교육을 받기 전 학생들의 지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23], 학부 교육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3.98점으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나 손숙현과 박정숙[1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선행연구[14]에서는 '올바른 손 위생 수행' 4.40점과 '이동침대 및 휠체어 이동 시 바퀴고정'이 4.53점으로 나타난 항목이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낮은 4.36점이었으나 가장 높은 수행자신감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자주 수행하는 부분이며 교내 핵심술기실습에서도 학생들에게 손 위생에 대한 강조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오류 시 경위서 작성' 3.50점, '오류 원인을 찾기 위한 상황분석'에 대해서는 3.54점으로 수행자신감이 가장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실습기관의 보고체계를 따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안전에 대한 오류발생 감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건보고를 통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이다[24]. 따라서 교내실습 시 시

플레이션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문제 발생 시 문제점에 대한 상황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교육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행자신감과의 차이는 간호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환자안전캠페인 교육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다는 선행연구[10][14][15]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 및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전공과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내외적으로 대책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간호전문직관은 3.85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나 박정혜와 박명화[15]와는 일치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손숙현과 박정숙[14]의 3.99점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환자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의료 질 보장과 함께 임상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양질의 간호제공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고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25].

안전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강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27]. 또한 임경민과 조은주[28]는 간호전문직관에 임상실습 만족도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간호사로서의 올바른 직관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이 필요하며[27] 실습만족도 향상은 수행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5] 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즐거움이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고[29] 수행자신감도 높아지며 안전관리에 대한 실천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박미화[25]의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가 간호전문직관과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이 높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수행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박병준, 박선정, 조하나[30]의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가질수록 더욱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임상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수행자신감과 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1]. 그러나 지식과 간호전문직관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단순히 전공 지식습득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활동 등을 통해 간호에 대한 직업의식을 갖게 하고 개인이 행동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치관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임경춘, 박미성, 신계영[32]은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윤리의식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라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자각하는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생각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실습 전 윤리의식과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정현숙, 공정현, 전미양[10]은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지식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간호라는 전문직을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한 지식습득을 통해서도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식의 증가를 통해 반드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을 위한 행동의 동기는 지식이 영향을 미친다[33]. 따라서 학생들이 확실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실습에 임한다면 수행자신감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선주[5]는 신규간호사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학습진이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결과, 환자안전에 대한

자기 효능감, 지식 및 기술영역의 안전간호역량이 향상됨을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실습 전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를 집목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은 더욱 더 안전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기효능감 및 수행자신감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행자신감 및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안전관리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중·후의 단계별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당 임상실습기관의 환자안전관리 위원회 및 감염관리팀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서제희, 송은솔, 최성은, 우경숙,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2] 김재영, 황은애, *의료서비스 소비자안전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4.
- [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7년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7.
- [4] 이재호, “환자안전과 의료표준,” *대한의사협회지*, 제54권, 제5호, pp.444-446, 2011.
- [5] 최선주, *신규간호사를 위한 학습전이기반 환자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6] A. A. Abbott, K. T. Fuji, K. A. Galt, and K. A. Paschal, “How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value an interprofessional patient safety cours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Scholarly Research Network Nurse*, Vol.2012, pp.1-7, 2012.
<http://dx.doi.org/10.5402/2012/401358>
- [7] M. M. Walton, T. Shaw, S. Barnet, and J. Ross, “Developing a national patient safety education framework for Australia,” *Quality and Safety in Health Care*, Vol.15, No.6, pp.437-442, 2006.
- [8] 정연이, 백현지, 이순교, 최윤경, *환자안전사고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보고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4.
- [9] 유하나, 이해영, “간호대학생을 위한 환자안전관리활동 측정도구에 대한 검증과 적용,”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6권, 제6호, pp.3423-3436, 2014.
- [10] 정현숙, 공정현, 전미양,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6호, pp.121-130,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6.121>
- [11] 정미현, “간호대학생의 혈액 및 체액 노출실태, 감염예방 표준주의 지식, 인지도 및 수행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316-329, 2015.
- [12] 이소진, 박주영, 조나리, “간호대학생의 감염관리 표준주의에 대한 지식도, 인지도가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제23권, 제4호, pp.347-358, 2017.
<http://dx.doi.org/10.11111/jkana.2017.23.4.347>
- [13] M. Vaismoradi, M. Salsali, and P. Marck, “Patient safety: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and the role of nursing education to provide safe car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58, No.4, pp.434-442, 2011.
- [14] 손숙현, 박정숙,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및 안전관리 행위,”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pp.1047-1053, 2017.
<http://dx.doi.org/10.13000/JFMSE.2017.29.4.1043>
- [15] 박정혜, 박명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자신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1호, pp.5-14, 2014.

-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5>
- [16] 허성수, 강희영,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환자안전관리활동,”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5458-5467,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8.5458>
- [17] 박영래, “간호학생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자신감,” 기본간호학회지, 제14권, 제4호, pp.429-436, 2007.
- [18] 김나래,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직관, 조직 임파워먼트와 환자 안전문화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19] 최승혜, 이해영,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환자 안전관리 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행정학회지, 제21권, 제2호, pp.184-192, 2015.
<https://doi.org/10.1111/jkana.2015.21.2.184>
- [20]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한국간호과학회지, 제35권, 제6호, pp.1091-1100, 2005.
- [21]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pp.73-79, 2008.
- [22] 함영림, 박미정, 이해영, “응급구조과 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환자안전관리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급구조학회지, 제21권, 제1호, pp.75-85, 2017.
<https://doi.org/10.14408/KJEMS.2017.21.1.075>
- [23] R. Schnall, P. Stone, L. Currie, K. Desjardins, R. M. John, and S. Bakken, “Development of a self-report instrument to measure patient safety attitudes, skills, and knowled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40, No.4, pp.391-394, 2008.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8.00256.x>
- [24] 이재호, 이상일, “환자안전의 개념과 접근 방법론,” *한국의료 QA학회지*, 제15권, 제1호, pp.9-18, 2015.
- [25] 박미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11호, pp.317-327, 2017.
<https://doi.org/10.14400/JDC.2017.15.11.317>
- [26] 고정은, 김미희, 김은진, 김혜지, 엄지은, 이행아, 장누리, 장동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일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화간호학회지*, 제45호, pp.29-44, 2011.
- [27] 이광옥, 최현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조절 및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 pp.68-77,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6.68>
- [28] 임경민, 조은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pp.556-566,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56>
- [29] 장태정,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30] 박병준, 박선정, 조하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연관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220-227, 2016.
- [31] 방경숙, 채선미, 유주연, 송민경, 이지혜, “아동간호 임상프리셉터십 경험유무에 따른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 자신감, 실습만족도 비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96-404, 2013.
- [32] 임경춘, 박미성, 신계영, “간호대학생의 윤의식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가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근관절건강학회지*, 제24권, 제2호, pp.140-149, 2017.
<https://doi.org/10.5953/JMJH.2017.24.2.140>
- [33] M. Askarian, Z. A. Memish, and A. A. Khan, “Knowledge, practice, and attitude among Iranian nurses, midwives and students regarding standard isolation precaution,” *Infection control Hospital Epidemiology*, Vol.28, No.2, pp.241-244, 2007.

저 자 소 개

임 동 영(Dong-Young Lim)

정회원



- 2008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7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
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건강증진, 치매, 노인

장 현 정(Hyun-Jung Jang)

정회원



- 2006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2014년 2월 : 문경
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 만성질환